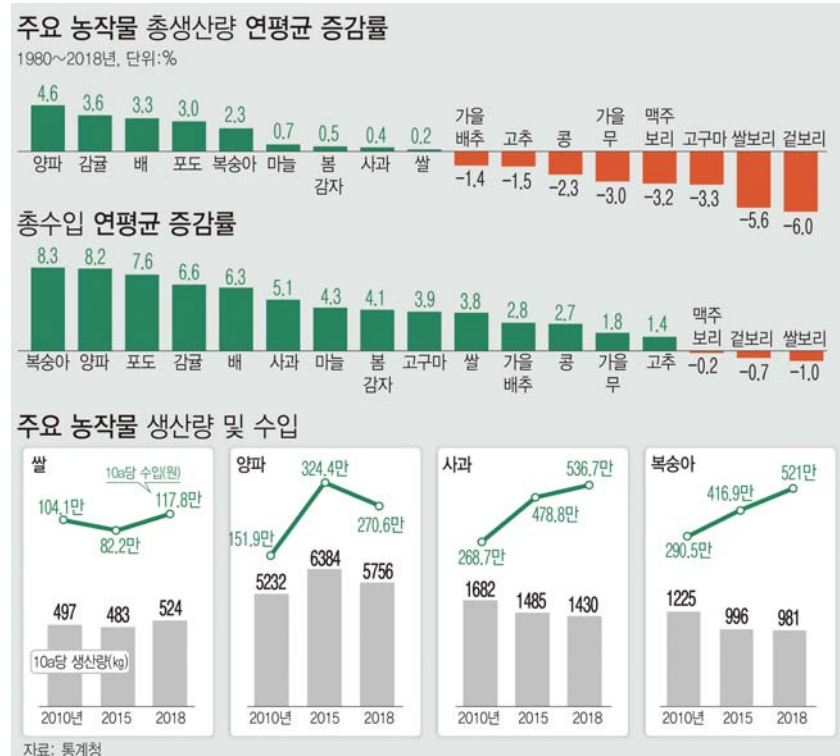


복숭아, 38년간 농작물 총수입 '1위'

■ 통계청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발표

530억원→1조990억원...약 20.7배 수입 증가
 쌀·겉·맥주보리, 총수입 감소...재배면적 ↓
 양파, 재배면적·총생산량·총수입 모두 늘어



복숭아가 지난 38년간 가장 많은 수익을 낸 '효자 농작물' 1위에 올랐다. 반면 쌀보리·겉보리·맥주보리 등 보리류는 38년 사이 연평균 총수입이 감소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에 따르면 복숭아의 총수입은 1980년 530억원에 그쳤

지만 지난해 1조99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38년 사이 약 20.7배 수입이 증가한 셈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나타났다.

재배면적과 총생산량도 급증했다. 지난해 복숭아의 재배면적은 2만1000ha로 1980년보다 103.6% 증가했다. 총생산량은 1980년 8만9000톤에서 지난해 20만7000톤으로 133.3% 늘었다. 재배면적은 연평균 1.9%, 총생산량은 연평균 2.3% 늘어났다.

연평균 총수입이 증가한 작물은 복숭아를 포함해 양파(8.2%), 포도(7.6%), 감귤(6.6%), 배(6.3%), 사과(5.1%), 마늘(4.3%), 블루berries(4.1%), 고구마(3.9%), 논벼(3.8%), 가을배추(2.8%), 콩(2.7%), 가을무(1.8%), 고추(1.4%) 등이다.

반면 쌀보리, 겉보리, 맥주보리는 연평균 총수입이 각각 -1.0%, -0.7%, -0.2%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연평균 겉보리 -5.7%, 쌀보리 -5.1%, 맥주보리 -3.0%로 감소했다.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의 연평균 총생산량도 각각 -6.0%, -5.6%, -3.2% 줄었다.

쌀보리는 총수입이 1984년 226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1년 620억원으로 바닥을 찍었다. 총생산량은 1981년 52만9000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3년 3만톤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1980년(45만7000톤) 대비 지난해(5만2000톤) 총생산량은 88.6% 감소했다. 연평균 총생산량이 5.6%씩 감소한 것이다.

겉보리는 총수입이 1983년 115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010년 170억원으로 급감했다. 총생산량은 지난해 2만6000톤으로 1980년(26만7000톤)보다 90.3% 줄었다. 재배면적도 지난해 1만2000ha로 1980년(11만1000

ha)보다 89.2%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맥주보리는 1996년 14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지만 2012년 130억원으로 최저 수익을 찍었다. 지난해 총수입액은 330억원이다. 총생산량은 지난해 2만5000톤으로 1980년 8만7000톤보다 71.8% 줄었다. 재배면적도 지난해 1만1000ha로 1980년(3만4000ha)보다 68.4% 감소했다.

양파는 38년간 연평균 재배면적 3.3%, 총생산량은 4.6%, 총수입은 8.2% 증가하는 등 총수입과 총생산량, 재배면적 모두 상위권에 랭크됐다. 특히 총생산량은 2018년 152만1000톤으로 1980년 27만5000톤보다 453.2% 증가하면서 17개 농작물 중 1위를 기록했다. 재배면적 또한 지난해 2만6000ha로 1980년(8000ha)보다 241.4% 늘어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38년간 연평균 총생산량이 증가된 농작물은 양파를 포함해 감귤(3.6%), 배(3.3%), 포도(3.0%), 복숭아(2.3%), 마늘(0.7%), 블루berries(0.5%), 사과(0.4%), 논벼(0.2%) 등 9개였다. 총생산량이 감소한 농작물은 겉보리(-6.0%), 쌀보리(-5.6%), 고구마(-3.3%), 맥주보리(-3.2%), 가을무(-3.0%), 콩(-2.3%), 고추(-1.5%), 가을배추(-1.4%) 등 8개였다.

재배면적 연평균이 증가된 농작물은 양파(3.3%), 복숭아(1.9%), 감귤(1.6%), 포도(1.3%), 배(0.3%) 등 5개에 그쳤다. 겉보리(-5.7%), 쌀보리(-5.1%), 가을무(-4.2%), 고추(-3.9%), 콩(-3.4%), 맥주보리(-3.0%), 고구마(-2.5%), 가을배추(-2.0%), 블루berries(-1.4%), 논벼(-1.3%), 사과(-0.9%), 마늘(-0.7%) 등 12개 농작물은 재배면적이 감소했다.



"신도들이 채소 맛 보세요" 이마트가 29일 서울 성수점 농산매장에서 '강원도 농산물 페스티벌'을 열고 파프리카, 양배추, 오이 등을 선보이고 있다.

"금리하락→소비증가 이어져 빛부담 크면 소비보다 상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변동금리 차주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에 실린 '통화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차입자 현금흐름 경로를 중심으로' 보고서(송상윤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소비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10% 하락하면 차주들의 분기당 평균 소비신용카드 이용액은 약 6000원 늘었다. 특히 변동금리 차주의 소비는 약 8000원 증가했다. 고정금리 차주 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보고서가 '금리하락→주택담보대출 금리하락→이자상환액 감소'에 따른 차입자 가처분 소득 증가→소비증가 등 통화정책의 차입자 현금흐름 경로를 통해 금리하락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금리하락이 변동금리 차주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과 유동성, 신

용 접근성, 부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부족한 소득, 신용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이자상환액 감소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이 높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차주들은 이미 소비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자 감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족한 차입자의 한계소비성향은 0.603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차입자(0.343)보다 높게 추정됐다.

신용점수가 낮으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의 한계소비성향도 0.54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이자상환액 감소는 소비보다 원금 상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영향은 유동성과 신용 접근성이 낮은 차주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소비 제약을 받고 있더라도 부채가 많으면 소비보다 빚 갚기에 더 적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취준생 가장 가고 싶은 곳 1위 공기업, 2위 대기업"

잡코리아, 신입직 취업준비생 852명 대상 설문조사

하반기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3명은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하반기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85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취업 목표 기업과 취업 자신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올 하반기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공기업'을 꼽은 취업준비생은 29.5%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 취업이 목표라는 취업준비생이 20.9%로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중

견기업(13.4%) ▲중소기업(11.5%)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상관없다'는 취업준비생도 18.9%로 적지 않았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각각 달랐다. 공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1위는 '직원 복지와 근무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복수선택 응답률 7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업하고 싶다는 답변이 응답률 51.4%로 과반이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1위는 '높은 연봉'이었다.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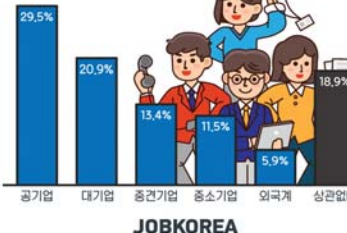
'연봉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취업준비생이 77.5%(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근소한 차이로 '직원복지/근무여건이 좋을 것 같아서(71.9%)'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취업준비생이 많았다.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취업준비생들도 그 이유로 '직원복지/근무여건(52.0%, 응답률)'을 꼽았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48.0%)', '해의 근무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42.0%)' 외국계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취업준비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1위는 '직원복지/근무여건이 좋을 것

신입직 취업준비생 29.5%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공기업'

*신입직 취업준비생 852명 조사 / 자료제공: 잡코리아



같이'가 응답률 46.5%로 가장 높았다. ▲일하면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36.8%)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32.5%)는 답변도 많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 1위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의 비중이 37.8%로 가장 높았다.

뉴스시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